

근대 국가 담론의 인적 자본 재배치와
법·지식 담론*
-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중심으로

권 경 미**

차 례	
1. 서론	3. 법과 지식의 미끄러짐
2. 농촌의 토지관리 및 인구 재배치	1) 법의 폭력성과 불완전한 법
1) 토지개혁과 농촌구성원의 표준화	2) 공인된 지식과 유사지식(pseudo knowledge)
2) 반공주의와 국민국가 민주시민 정체성	4. 결론
3) 차별적인 농촌개발 정책과 원주민 이주	

국문초록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해방기 이후 197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근 40여 년의 우리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관촌수필』이 해방기-건국-전쟁-군사 정권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촌수필』은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 담론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독해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조교수

구의 『관촌수필』은 농촌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고에서는 『관촌수필』을 근대국가 통치 담론을 담아낸 소설로 보고자 했다. 특히 농촌이 도시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급책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국가 통치 경향이 소설에 녹아있다고 보았다. 통치경향은 크게 인적·물적 자원 재배치와 법·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촌수필』의 인적·물적 자원 재배치는 세 가지 층위에서 나타난다. 첫째, 토지개혁을 통한 신분 사회 재정비 둘째, 반공주의를 통한 국민국가 민주시민 의식 고취 셋째, 차등적인 농촌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이동이다. 제1공화정부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근대 국가 담론은 인적자원을 재배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사농공상의 질서가 비교적 잘 보존된 지방은 중앙집권형 권력에 방해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앞세워 이승만 정권은 토지개혁을, 이승만 정권, 박정희체제는 반공주의를, 그리고 박정희체제의 차별적인 농촌개발 전략은 지방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했다. 인적자원 재배치에는 물적자원의 재배치와 맞물리면서 농촌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외에 근대국가 통치담론의 핵심은 법과 지식이다. 법은 폭력성과 맞물려 논의되는데 본고에서는 법의 폭력성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본질임을 밝히고자 했다. 법이 합리성, 정의를 앞세우지만 법의 실체가 금기, 제한, 금지이며 신의 법이든, 인간의 법이든 폭력성을 그 뿌리에 둠을 밝히고자 했다. 다만 법은 다양한 관점들의 종합인 만큼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때 법의 그 폭력적인 실체와 본질이 드러난다. 아울러 지식 역시 획일화, 동일성을 통해 보편성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관촌수필』에서는 그 획일적인 보편성이 미끄러진 지식, 유사지식으로 드러나면서 소수자 유토피아를 만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 토지개혁, 반공주의, 표준화, 유사지식, 폭력성, 공인된 지식, 소수자 유토피아, 발리바르, 알튀세르

1. 서론

이문구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층민의 삶에 주목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농촌과 농민이 굶주린 한국사를 관통하면서 이지러지지만 고유의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농촌과 농민에 기울인 관심은 그를 농촌문학 작가라고 불리는 게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그중 『관촌수필』¹⁾은 작가의 체험에 기반한 사소설의 성격이 뚜렷하다. 『관촌수필』에 등장한 농촌 공동체는 고향의 원형이면서 농촌구성원 모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읽힌다. 식민, 한국전쟁이 관통한 농촌은 훼손되고 해집어진 채 그 이전 농촌의 모습과 같지 않다. 이문구는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인물을 중심으로 달라진 농촌을 기억하고 재현하기 때문에 농촌을 둘러싼 한국의 격변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후경으로 처리한다. 그렇지만 소설 속 인물의 언어, 행위, 태도 등에는 한국사의 흔적이 짙게 묻어있다. 『관촌수필』은 이문구의 대표작이면서 한국 현대 농촌문학의 정수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연구 성과 역시 많이 누적돼 있다.

『관촌수필』을 둘러싼 연구는 작품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는 주제 의식이 반영돼 있다. 『관촌수필』 연구는 크게 기억에 대한 탐구²⁾, 인물에 대한 분석³⁾, 고향 및 장소성에 대한 연구⁴⁾, 문체 및 언어에 대한 연구⁵⁾

1)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1996.

2)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 봄 51호, 1979.; 박수현, 『망탈리테의 구속 혹은 1970년대 문학의 모태』, 소명출판, 2014.; 김현정, 「근대문명의 폭력과 고향」, 『비평문학』 4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 송호영, 「『관촌수필』을 구성하는 기억과 망탈리테」, 『한국문학연구』 6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0.

3) 박수현, 「이문구 소설의 민중 표상 연구」, 『어문학』 111호, 한국어문학회, 2011.; 한선희,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나미숙, 「『관촌수필』 인물 연구」, 『사람어문연구』 24권,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람어문학회, 2014.

4) 용석원, 「이문구 『관촌수필』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과 의미」, 『겨레어문학회』 58호, 겨레어문학, 2017. ; 우은진, 「이문구의 『관촌수필』에 나타나 있는 로컬리티

그리고 전통, 근대성에 대한 주제 연구⁶⁾로 나눌 수 있다.

송호영은 이문구가 고향을 떠난 지 13여 년이 지난 1970대에 할아버지-아버지로 이어지는 194,50년대를 소환함으로써 1970년대의 “당면 문제에 관한 작가 이문구의 대 사회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⁷⁾ 이문구의 과거 소환이 1970년대 현실을 조망하고자 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과거 내지 전통을 수복하고자 한다는 일단의 해석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 논자의 견해이다.⁸⁾ 『관촌수필』의 인물 연구는 소설 속 인물을 유형화하고 인물이 시대와 조우하는 방식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로 비교적 단편적, 단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용석원은 『관촌수필』 속 농촌이 고향의 전형성을 도시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항대립적인 장소로 규정하고 “근대화가 조류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⁹⁾ 사람들이 모인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은진은 ‘고향 농촌’이 소설의 배경에 지나지 않고 “소설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또 연결하는 요소”¹⁰⁾임을 밝히고 있다. 유승환은 이문구의 방언 사용이 지방어, 고향의 언어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의도된 문학어이며 그 자체로 소설의 주인공이 됨을 밝히고 있다. 『관촌수필』은 전통 소환, 전근대적 가치관 추구, 유교 공동체 재현이 선명하게 부각된

재현 연구, 『한국문학논총』 86권, 한국문학회, 2020.

5) 우찬재, 『포괄의 언어와 복합성의 생태학』, 『문학과 환경』 10권, 문학과 환경학회, 2011.; 유승환, 『사투리는 어떻게 문학어가 되는가?』, 『구보학회』 18호, 구보학회, 2018.

6) 구자황, 『이문구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고인환,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과 탈식민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김경희,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장마리,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구자황, 『이문구 소설의 이야기성에 관한 두 가지 고찰』, 『한국문학연구』 5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 이승수, 『『관촌수필』의 독법 두 가지』, 『동악어문학』 84권, 동악어문학회, 2021.

7) 송호영, 위의 논문, 126쪽.

8) 위의 논문, 127쪽.

9) 용석원, 위의 논문, 264쪽.

10) 우은진, 위의 논문, 184쪽.

소설이다. 이는 때로는 『관촌수필』 독법에 방해물을 가져오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나 구자황은 이러한 전근대적 요소가 근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한 양태임을 밝히고 있고¹¹⁾, 고인환은 이에 더해 이 문구의 전근대성이 탈근대성을 선취한 모델이라고 보았다.¹²⁾

이상에서처럼 『관촌수필』을 둘러싼 연구는 그 폭의 다양성, 깊이의 내밀성 등으로 상당히 진척돼 있다. 소설의 소재인 농촌 공간, 전통의 의미, 인물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소설 그 자체만의 미학을 탐구하기 위해 언어와 문체 등까지 연구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이런 성취로 『관촌수필』의 내적/외적 연구가 풍성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존 연구는 『관촌수필』을 집필 시기인 1970년대 당대에 위치시키거나 한국전쟁 전후라는 시간축에 고정하게 한다. 『관촌수필』의 작중 시공간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소설이 1950년 전후나, 1970년 당대만 초점화된 것이 아니라 1950년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통시적 시공간축을 구성한다는 것을 새삼 인식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박정희체제까지,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군사정권 집권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소설은 소설에서 특정 시기와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어 있기에 이 소설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다’와 같이 독해하는 것이 익숙할 수 있다. 이 서사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지 않고 서사 하나하나를 이어붙인다면 이 소설을 해방 이후부터 군사정권에 이르는 통시적 서사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을 통시적 서사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와 겹쳐 해석할 수 있다.

장연진은 『관촌수필』을 비롯해 이문구 문학 전체를 조망하면서 ‘한국 전쟁기’, ‘독재정권기’, ‘민주화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각 가족, 사회 비판, 개인의 문제를 다루었다.¹³⁾ 장연진은 이문구 문학 전반을 통해 이문구가 “하고 싶은 말과 말할 수 없음이 충돌하여 생성하는 길항관계”¹⁴⁾

11) 구자황(2001), 앞의 논문, 4-5쪽.

12) 고인환, 앞의 논문, 4-6쪽.

13) 장연진, 『이문구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를 밝히고 있다. 장연진 연구는 이문구 문학의 궤적을 따라 전 시대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¹⁵⁾ 다만 장연진 역시 『관촌수필』에 한해서는 이 소설을 집필하던 1970년대 당대를 깊이 있게 조명한 소설로 평가하면서 1970년대라는 당대성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관촌수필』을 해방기 이후 40여 년의 역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집필 당시와의 상관성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한국사 40년의 흔적이 이 『관촌수필』에 묻어있는 만큼 그 시간의 흐름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¹⁶⁾ 이는 이문구의 『관촌수필』이 ‘소설’보다는 ‘수필’에 가까운 사실성이라는 점으로, 작가 개인의 삶과 체험이라는 것으로 문학 속 현실을 ‘리얼’하게 읽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 루카치는 리얼리즘을 통해 역사의 거대한 총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⁷⁾ 문학 안에는 사회적 조건과 배경이 담겨 있고 이는 곧 문학 설립의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¹⁸⁾ 이로 인해 『관촌수필』의 배경, 서사 전개, 갈등 양상에서 현실 담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촌수필』을 관통하는 시간의 흐름에 깊게 개입한 근대 국가 담론을 인적자원 재배치와 법과 지식에 의한 통치로 보고자 한다.¹⁹⁾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14) 위의 논문, 17쪽.

15) 장연진은 『관촌수필』을 “사회적 발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백의 알리바이”로 집안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아 군사정권의 반공의 칼날을 피하고자 한 소설로 보고 있다. 위의 논문, 67쪽.

16) 『관촌수필』은 방언, 농민 그리고 농촌이라는 진한 외피로 인해 그 안에 녹아든 우리나라의 40여 년의 근현대사가 흐릿해 보인다. 개성 강한 농민이 소설의 전면에 위치해 있어서 그 인물 행위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인물의 행위를 추동하게 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따져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경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소설적 상황과 맥락을 드러내고 소설 인물과 서사를 연결할 때 『관촌수필』을 보다 더 풍성하게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 루카치,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98.

18) 김세준, 「운동성으로서의 총체성과 문학비평담론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6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32-33쪽.

19) 근대 국가 담론을 법, 물질 자원 및 인적 자원 그리고 지식으로 구분한 것은 푸

로 인해 『관촌수필』 속 인물들은 삶의 터전에서, 생애사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 소설 속 인물은 자신의 뿌리였던 고향을 등지거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의 일신상의 큰 변화를 경험한다. 반면 법과 지식의 통치는 정주하고 있는 인물에게 유의미하다. 법과 지식은 지금, 여기의 현장성을 지녀 정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동한다.

2. 농촌의 토지관리 및 인구 재배치

1) 토지개혁과 농촌구성원의 표준화

『관촌수필』에는 지방 대지주의 몰락과 빈농의 자립, 자영농의 증가와 같은 인물의 사회 계층 이동이 보인다. 이 소설 자체가 인물의 계급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지만 해방 이후 70년대까지를 조망한 이 소설에서는 다양한 인물의 사회 계급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토지개혁은 정주하고 있던 삶에 큰 균열을 가한다. 특히 대지주의 몰락과 자영농의 부상은 우리나라 계급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방 토호 세력인 대지주가 그 세력을 잃고, 자영농 증가와 더불어 농민의 수입이 증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아니라 매우 인위적인 외부 힘의 작용으로 일어난 일이다. 지방 농촌에서 일어난 계급 이동은 이승만 정권, 박정희체제를 거친 국가 담론의 일환이다. 농촌을 중심으로 인구와 계급에 토지개혁과 반공주의 그리고 도시화라는 국가 담론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코의 논의를 따르는 것이다. 푸코는 근대 국가가 지식,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배치가 어떻게 법이라는 통치 수단이 되었는지를 꾸준히 분석하고 연구했다. 본고에서는 푸코의 논의를 따라 우리나라 근대 국가 담론이 이문구의 소설 안에서 어떻게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의 배치 그리고 지식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푸코의 논의는 『안전, 영토, 인구』(오르트망 역, 난장, 2011) pp. 193-312을 참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군정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국가 정당성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삼았다. 이승만 정권을 비롯해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국가 정통성의 핵심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였다.²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미군정에서부터 도입된 기성품이자 수입품으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치열한 경쟁 끝에서 도출된 타협안과는 거리가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가 “부르주아 계급 이념”을 대표하고, 민주주의가 “인민주권론”을 대변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그 양단을 아우르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갈등을 빚어 만들어진 이념이 아니라 제도로서 안착되었다.²¹⁾ 수입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우리나라 국민이 충분히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도로 자리 잡았다.

조선을 지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지배-피지배 계급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해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양반 중심의 계급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일락서산』에서는 상주목사의 아들이자 강릉부사 손자였던 조부의 이력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는 사대부 가문의 후예를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이였다. 조부로부터 유학과 가정교육을 받았던 ‘나’는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양반 의식과 정체성을 가졌다.

마을을 아주 떠나던 날까지도 일가 손윗사람이 아닌 이에게는 무슨 경어나 존칭을 써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지시였고, 곁에서 배운 버릇이었다. ... 안팎 동네 사람의 거지반이 행랑이나 아전불이었으므로 하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지론이요 고집이었던 것이다. (『일락서산』, 29쪽)

서원말 사람으로 우리집을 가장 자주 드나든 이는 언제나 패랭이를 쓰고, 두루마기도 없이 짚세기를 펜 채 구력을 메고 다니던 환갑 늙은이

20) 문지영,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부 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2쪽.

21) 위의 논문, 11쪽.

였다. ... “되런님, 나리만님 지신감유?” (『일락서산』, 42쪽)

마을 안 ‘도련님’으로 통했던 작가는 미취학 아동이었던 6세부터 마을 어른 모두에게 하대하는 것에 큰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 조부뿐만 아니라 마을 역시 유교 질서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 질서 공동체는 민중이 사대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게 했다. 토지개혁은 이 관계에 균열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범대서를 개업했던 아버지는 미두로 기운 가세를 되살리기 위해 몇 척의 어선을 가진 선주였으며, 여러 두락의 염전을 소유하여 상당한 수입을 보고 있었다. ... 더불어 대서사도 선주도 아니었으며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상환 농지 및 필지로 겨우 식량 걱정이나 안 할 정도의 영세한 농민이었다. (『일락서산』, 45쪽)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가는 재정난에 시달렸는데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것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방의 경우 대지주 세력이 견고하고 자영농보다 빈농이 많았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 보상금도 일시 지급이 아니라 5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매입했다. 48년부터 시행한 토지개혁은 50년 3월까지 전체 소작지 144만 정보 중 총 55만 정보(전체 토지의 38%)를 매각했다.²²⁾ 지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빈농은 토지를 분배로 자영농의 길이 열림으로써 농촌에서도 사대부 지배 분위기에 균열을 가할 수 있었다.²³⁾ ‘나’는 대대로 이어져 온 상당한 가산으로 충남

22) 신병식, 『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보』 31권 3호, 한국정치학회, 1997, 40-41쪽.

23) 물론 빈농이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았다. 실제로 분배농민의 경우 전지 기간 동안 임시토지소득세를 신설하여 농민은 생산물의 45% 이상을 현물로 국가에 징수당했기 때문이다. 위의 논문, 42쪽.

보령 일대 대지주였으나 1948년 이후 단행된 토지개혁으로 대지주에서 일반 자영농이 되었다. 대지주의 토지가 줄어든 규모만큼 지역의 빈농의 형편은 나아졌다. 이렇게 위계화된 농촌 공동체 신분 질서는 근대 국가 담론 하에서 토지개혁과 더불어 새롭게 재편되었다. 토지 소유의 변화가 농촌의 신분 질서에도 영향을 끼쳤다. 신분 질서 재편은 민주적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 하나하나를 통치하는 주체가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공산토월』에는 작가의 부친을 존경해서 서슬 퍼런 반공법의 위협에도 끝까지 신의를 지킨 어진 신석공(현석)이 등장한다. 신석공이 보인 신의로 그는 『관촌수필』에서 고귀하며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신석공이 소설 속 ‘나’와 ‘나’의 가족에게 보인 신의의 바탕에는 신분 질서가 깔려 있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이씨 문중에 기대 살아가는 고용인 신분이었다. 그냥 고용인이 아니라 반상의 도가 엄격한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계급의식을 지닌 고용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신분 질서가 없어졌다 해도 그 흔적이 남아 있던 시공간이었다. 신석공 가계도 그러했다.

“이 가이(개)색기들아 - 나, 이 신 아무개 아즉 안 죽구 여기 있다.... 두구 봐라, 이 드런 늙은 색기들.... 누가 더 잘되나 야중에 두구 대보잔 말여, 이 웬수 같은 늙달아...”

그 험담이 가는 곳도 고정되어 있었다. 물론 자기가 어려서부터 행랑불이로 엮어매져 있었던 이가네더러 그러던 거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켜켜로 쌓였던 불만과 짓눌렸던 주눅을 피워 체증기 내리는 약으로 삼아온 거였다. (『공산토월』, 219쪽)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이라면 신서방의 건주정이었다. 그의 주정 아닌 시비를 안 듣게 된 지도 어언 이태나 되나보라면서. 일가택 어느 아주머니는 신통해 마지않던 것이다.(『공산토월』, 236쪽)

점차 썸평이 펴이고 일상의 형편도 느는 것이 눈으로 보였으며, 살게 되느라고, 여름내 곱삶이를 면할 수 있도록 농사도 해마다 대풍이었다.

... 석공 내외가 거처하는 문간방 쪽에서는 으레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다. 라디오 한 대 장만하기가 송아지 한 마리 사들이기보다 갑절은 어렵던 시절이었다. 그는 신문을 구독하고, 쉬운 잡지도 열심히 사다 읽는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공산토월』, 233쪽)

신석공의 부친 신서방의 주사는 한결같았다. 그가 행랑아범으로 일했던 문중 이씨 가문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이 그것이었다. 신분의 고하를 따진 세월의 야속함은 그에게 어찌할 수 없는 열패감으로 남아 있었고 이것이 원망 섞인 주사로 드러났다. 자기 농사를 짓는 현재와 달리 차별적인 신분 질서 아래에서 일했던 기억이 그로 하여금 문중 이씨를 향한 원망하게 했다. 신서방은 자영농으로서 날로 불어가는 재산을 보면서 드디어 신분 질서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깨닫는다. 재산 형성이 곧 신서방의 현재 신분임을 보여준다. 넉넉한 살림살이는 도시 문명을 누리게 하는데 이 도시 문화 향유가 곧 시민됨을 직접적으로 상징한다. 신문 구독, 라디오 청취와 같은 문화적 행위가 곧 사회적 신분이자 문화적 소양이 된다.

2) 반공주의와 국민국가 민주시민 정체성

토지개혁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은 불하받은 농토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빈농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사농공상으로 나뉘던 신분 질서는 실질적으로 낡은 체계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반공주의가 인적 재배치에 영향을 미쳤다.

사농공상의 서열을 망국적 퇴폐 풍조로 지적했고 ‘무산 계급의 옹호와 인민 대중의 사회적인 위치를 쟁취한다’는 구호와 함께 그것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서 주도하기 시작한 거였다. 아버지는 장날마다 한내천 모래사장에서, 또는 쇠전이나 싸전 마당에서 강연회를 열었으니 그것은 힘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감동과 지지를 얻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웅변이었다고 들었다.('일락서산', 45쪽)

‘나’의 부친은 “무산 계급의 옹호와 인민 대중의 사회적인 위치를 쟁취”하는 데 신념을 바쳤다. 사대부가 종택 사랑방에는 나무장수, 대장간 풀무장이, 목수, 땀장이, 말몰이 등이 무시로 드나들었다. 아랫사랑방이 신분질서가 엄격하게 살아있는 조부의 공간이라면 윗사랑방은 사회주의 사상 아래 계급 서열이 모두 사라진 공간이었다. 토지개혁이 실질적인 신분 질서를 와해한 제도였다면 사회주의 사상은 이념적, 관념적 신분 벽을 허무는 역할을 담당했다. 반상 질서가 엄격한 농촌에서 양반 신분을 지닌 마을 지도자가 스스로 신분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농촌 공간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촌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오염된 사상이었다. 사회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사상이었고 이로 인해 ‘나’의 부친은 수시로 구속되었다.

신서방의 소원이 관청의 월급쟁이 아들을 두는 것이었음은 마을에서 모를 사람이 없게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 그자는 석공의 관공서 고용원 됴이 부당하다는 사유로서 석공이 불온한 사상에 감염되어 있다고 무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공산토월', 220-221쪽)

그것이 변형되어 남로당으로 발전했던 것은 그로부터 다시 많은 시일이 흐른 뒤의 일이었지만,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 돼버렸다. ... 아버지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기보다 예비 검속으로 영어 생활하는 날이 더 많아졌고...('일락서산', 45쪽)

“국방군이 안 올라왔다면 나는 여직 빨갱이덜 땀이 유치장서 썩구 있을 게다 국방군두 올라오구 했으니까, 옷시 두구 봐라.”

“국방군 될라구?”/ “아녀, 인저 웬수를 갇으야지, 내 고생헌 웬수를

값으야여.” (『녹수청산』, 161쪽)

『녹수청산』 속 ‘대복’은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고 미군정기 때는 소를 훔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인민군이 잠시 관촌에 주둔해 미군정기 때 수감된 사람을 인민을 위해 투쟁한 인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석방하자 대복은 줄지에 소도둑에서 인민영웅이 되었다. 인민군을 등에 업은 ‘대복’은 인민군을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서 공출받는 것에 앞장서는 등 좌익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복’이 ‘강간 미수범’으로 인민군에 의해 구속되고 이후 국군이 마을에 주둔하게 되자 이번에는 국군이 수감자를 인민군에 맞서 자유를 지킨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을 방면했다. 이 소설은 사상에 의한 인구 재배치에 대한 문제를 이 ‘대복’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인구 재배치가 얼마나 느슨하고 허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대복’의 이야기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공주의 질서하에서 부역한 자들은 스스로 국민국가, 자유민주주의 시민임을 증명해야 했다. 『공산토월』은 『녹수청산』만큼 미군-인민군-국군 주둔으로 순간순간 변모했던 마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인민군이 주둔한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민군에 동조했던 이들은 국군과 한국 경찰이 치안을 맡자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어떤 이는 월북으로 그 의무를 회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동료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죄를 경감받기도 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잠깐이었다. 추석 지나고 며칠 안 되어 국군이 들어오고, 이내 경찰이 뒤를 이어 치안을 맡기 시작했던 것이다. (『공산토월』, 223쪽)

“공산질은 죄 놔두 했데. 저두 잼혀가서 늑신 처맞구 풀려나온 질이 라당께.” 하며 그녀는 어처구니없어하였다. 그 사내도 적치하에서 부역

을 했던 것이다. 물론 목숨을 붙이자니 마지못해 그랬겠지만, 하고 그녀는 말했는데, (『공산토월』, 226쪽)

사회주의, 반공주의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무수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큰 상처를 남겼다. 한국전쟁기 인민군이 남하한 때를 제외하고 국가 건립 후 사회주의는 감시와 검거의 대상이 되었다. 정작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붙이자니 마지못해”(226쪽) 그런 일로 여기기도 했으나 정작 의심받는 당사자와 그 식솔은 이전과 같은 삶이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반공주의는 자연스럽게 동질적인 국민성을 갖게 하는 동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차별적인 농촌개발 정책과 원주민 이주

1960년대 박정희체제 이후 발전자본주의는 도농 간의 극심한 격차를 가져왔다. 서울 집중 발전론은 농촌을 제물 삼아 이루어졌다. 농촌의 인력, 자원을 모두 끌어다 도시의 부흥을 가져왔지만 농촌은 그 이상 황폐해졌다. 농촌 재건을 위한 박정희 정권의 선택은 농촌을 희생해 이룬 서울 개발처럼 위계적인 발달 논리였다.²⁴⁾ 농촌의 표준화를 앞세운 개발 논리는 농촌을 중심 개발지와 주변 자연부락으로 구분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개발 역시 도시개발과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었다.

소도시의 변천에 맞추어 역사도 변한 것이다. ... 콘트리트 시공법에 맞추어서 시멘트적으로 변모했을 뿐이었다. ... 원주민이 밀려나고 유입인들이 가운데를 차지하여 노박이로 굳어가는 탓만도 아니겠지만... (『여요주서』, 316쪽)

용모네가 관촌부락에서 뜯은 것은 동네 앞의 개펄이 논으로 바뀔 무렵이었다. ... 그 돈으로 잃은 만큼의 농토를 장만하려면 거기서 늘잡고 시

24) 김옥선, 『1960~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지역 식민화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31-33쪽.

오리는 산골로 들어가 하늘에 막히 동네 아니면 밭도 디더볼 수가 없었다. (『여요주서』, 326쪽)

이제는 그 어느 한 가지도 그전 그 모습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 블록집이 대신 들어서 있는데, 아마 국민학교 선생이나 군청 계장쯤 된 사람이 지어 사는 살림집인 것 같았다. (『일락서산』, 15쪽)

구거지에는 지질한 블록집들이 잇대어 서 있어 등산객의 걸음이 잦은 서울 교외의 외진 동네와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다. (『일락서산』, 15-16쪽)

『여요주서』는 농촌의 변모한 모습을 ‘콘크리트’로 묘사했다. 흙, 돌, 나무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자로 지은 집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획일화된 거주 공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만큼 1970년대 관촌의 모습은 ‘나’의 13년 전의 기억과 사뭇 달랐다. 그 옛날의 풍경을 기억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 살고 있는 서울을 떠올리는 게 친숙할 만큼 달라져 있었다. 물과 산이 있는 정치 좋은 곳은 관광객을 위한 휴양지로 변모했고, 관촌 중심가에 위치한 초가집은 그 원주민은 온데간데없이 마을 지도자가 거주하는 중심지로 변모했다. 농촌의 변화는 농촌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휴양이 목적이었다. 농촌개발은 관광객의 입맛을 반영했고 농촌은 관광업을 주요한 수입원으로 삼았다. 농촌의 변모는 도시 중심의 원활한 물자 “순환”²⁵⁾을 반영한 것이다. 푸코는 국가 통치의 대상이 물자, 인간 모두이며 물자와 인간의 원활한 순환을 통치의 방향으로 봤다. 농촌이 도시에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을 위해 휴양의 경험과 공간 역시 제공하고 있다.

농촌에 불어닥친 근대화, 도시화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주민은 개발의 논리에 떠밀려 외곽, 더 외진 산자락에 거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그나마 농촌까지 접근성이 좋은 농촌의 교통 요지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그 땅을 지키지도 못했다. 교통 요지에

25) 미셸 푸코, 앞의 책, p. 444.

는 도시와 농촌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한 번 농촌 안에서 재현되었다.²⁶⁾

“이장 다음으로 동네 유지니까, 유지세를 무는 셈이군.” ... “그것두 아니여. 뭐냐 허면 이 동네에 사는 유일헌 본토백이라 이거여. 타관서 떠들어온 드난살이 열 사람버덤은, 낫거나 못났거나 그래두 토백이 하나가 더 낫다 그거여. 그래서 내가 늘 속절없이 바쁜 것이구.”(『관산추정』, 313쪽.)

『관산추정』은 ‘나’에게 관산(關山)인 ‘유복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복산’이 관촌에 있는 것만으로 고향을 느끼게 해 준다. ‘복산’이 관산인 이유는 그가 ‘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외지로 떠나거나 농촌개발에 떠밀려 외곽으로 이주하지 않고 거의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산’이 그나마 땅을 지킬 수 있었던 데는 그가 부농으로 자리 잡음과 더불어 외지 관광객을 위해 농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행운유수』에는 ‘나’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끼쳤던 ‘웅점’이가 등장한다. ‘웅점’은 일곱 살부터 ‘나’의 집에서 몸을 위탁한 식모였다. ‘나’보다 10살 많은 ‘웅점’은 ‘나’의 성장 과정 전부와 함께 한 누나이자 친구였다. ‘웅점’은 결혼 후에도 소식을 자주 전할 정도로 왕래가 잦았다. 결혼한 ‘웅점’이 남편과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했기 때문인데 한국전쟁 이후 왕래가 끊겼다.

6·25 난리 중에도 그녀는 자주 들러 홀로된 어머니를 위로하며, 어지러워진 집안 꼴을 제 일처럼 보살피 주었다. (『행운유수』, 113쪽.)

소문은 남편이 군대에 나가고부터였다. 그녀가 제금나서 살전 집은 군대 가서 부상을 당해온 시누 남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였다. 집

26)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과 시골/도시 담론』, 『역사연구』 31호, 역사학연구소, 2016, 332쪽.

을 잃고 세간은 합술되어 네 것 내 것이 없어졌으며, 시집살이도 유례없이 심하다며 그녀는 가슴을 태웠다. (『행운유수』, 115-116쪽)

결과는 뻔했다. 웅점이가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되돌아온 거였다. …… 그녀가 약장수 패거리를 따라다니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였다. (『행운유수』, 118쪽)

‘웅점’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전쟁이다. 전쟁으로 인해 ‘웅점’은 삶의 뿌리 전체가 흔들렸다. 가정이 해체되었고 터전도 잃어버렸다. 전쟁이라는 압도적인 사건이 개인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전쟁이 ‘웅점’ 삶에 큰 변화를 준 것은 맞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웅점’은 남편과 독립해서 거주하던 집이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에 참전 후 생사의 소식을 알 길 없자 ‘웅점’의 집은 시누와 그 남편으로 소유가 바뀌었다. 전쟁의 참화 속 재건은 ‘산 자, 생존자’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가 재건, 도시 재건 그리고 가정 재건 역시 산 자의 몫이다. 유골로 돌아온 ‘웅점’ 남편으로 인해 ‘웅점’은 시가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수복해야 할 가정 상실은 곧 자산의 재분배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전후 물자와 자원의 행방은 이렇게 산 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 속에서 여성, 과부는 자신의 터전을 상실하고 만다.

3. 법과 지식의 미끄러짐

1) 법의 폭력성과 불완전한 법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한 사농공상 질서 체계는 민주 시민사회로 대체되면서 인권, 민권 평준화를 꾀하였다. 민주 시민사회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법’이다. 법은 인간 평등을 보증하고 뒷받침한다. 신분 질서 시기를 잘 경험했던 농촌에서는 법이 보증한 민주질서를 더욱 신

뢰한다. 국민국가 내의 법은 국가, 영토 안에서 작동한다. 영토 안 법의 작동은 그 법이 그 영토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유학이 더 이상 농촌 공동체에서 힘을 쓰지 못할 때 법이 유교 질서의 충분한 대안이 되었을까. 『여요주서』와 『월곡후야』에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법이 당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요주서』는 야생동물 보호법이 내려진 농촌에서 핑을 밀렵했다는 오해를 받은 신용모의 수사와 재판을 다루고 있다.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기에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신용모는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법을 선명하게 체험한다.

소리와 함께 앉아 있던 용모는 얼굴을 천장으로 띄우면서 뒤로 나가 떨어져 뒤통수를 바람벽에 이겨붙였다. 구두 뒤축이 허벅지를 찌더니 아랫배로 올라갔다. 옆구리를 제긴 다음 엉덩이를 까뭉기고 어깻죽지로 올라왔다. 논산 훈련소에서 맛보고 십 몇 년 만에 받아보는 대접이었다. (『여요주서』, 334-335쪽)

“---- 나쁘게 생각지 마시구 좋은 경험 한번 했느니라구 생각하시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말이오, 최근 신문 지상을 통해서나 라디오 텔레비전 보도를 보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처벌하는 판이란 말이오. 이 사건두 당연히 구속 입건할 것이나, 당신은 처음이라니까 당신 말을 믿기루 허구, 특별히 생각해서 즉결로 넘기는 정도로 할 테니 그런 줄이나 아시오. 생각해 보오. 이 엄동설한에 교수도 마룻바닥에서 견뎌내겠소? 당신이 재수가 좋고 운이 띄어서 나 같은 사람 만난 줄이나 알아요.” (『여요주서』, 336쪽)

신용모에게 법은 ‘폭력’이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써야 했고, 수사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 대신 협박과 억박지름으로 대체되었다. 고성, 폭력, 협박 끝에 신용모는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됐다. 국가 통치의 근간인 법이 곧 폭력인 것이다. 법의 현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파출소에서 자행된 폭력은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이다. 그런데 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폭력이 법의 속성이다. 법은 “법이 제공되는 선민의 생명을 가르는 폭력적인 강요로 등장”²⁷⁾한다. 애초에 법은 신에게 속한 것으로 신이 인간의 자유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이다. 신에게 속한 법이 인간 세계와 질서 속에서 나타날 때 신의 법처럼 금지, 금기, 제약으로 드러난다. 스티븐 밀러는 이를 ‘사형 선고’로 설명한다. 사형 선고는 “한 사람을 법에 묶어두는 폭력이지만 법 그 자체를 제공하는 동일한 신에게서 신성한 폭력이 나온다면 사형 선고는 다른 종류의 신 혹은 어떤 결정적인 권위에 대한 언급에서도 그 자체로 자유로운 법의 최고 권력적 힘”²⁸⁾이다. 즉 신의 법이든 인간의 법이든 그 고유의 폭력성은 그대로지만 사형 선고가 인간 법이 지닌 최고의 권력이며 이는 법이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을 위반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법의 실체가 드러난다. ‘신용모’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법의 본질, 법의 권위가 나타난다. 그런데 ‘신용모’는 실제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오인으로 떨어진 일이므로 정의로운 법이라면 ‘신용모’가 억울한 지경에 처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소설이 비합리적인 수사 과정을 소개한 후 재판까지 조명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순회 재판소는 매주에 한 번씩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열린다. 이웃 고을 지법지원 판사가 12시 완행열차를 타고 와서 재판하고 3시 보통 급행을 타고 되돌아간다. 사건은 민사 형사를 가리지 않는데 대개는 즉결 재판으로 시간이 간다. (『여요주서』, 324-325쪽)

근년에 들어 먹고 살 일이 생긴 것치고 개나 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27) 스티븐 밀러, 강수영 역, 『법 이론의 한계에 선 라캉』,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사랑, 2008, p. 167.

28) 위의 책, p. 174.

없고, ‘국가와 민족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한다’는 말 할 줄 모르는 자가 없더니, 이제는 즉결 재판소에 나온 피의자마저 그런 말을 해야만 되는 줄로 아는 꼴이 우습던 것이다. (『여요주서』, 342쪽)

재판은 이웃 고을 판사의 즉결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변호사 배석 없이 이루어지는 판결은 그만큼 무겁지 않은 사건 위주였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법에 의거해 사건 그 자체만을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사관이 강요된 자백으로 사건을 기소한 것과 다르게 비교적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재판받는 피의자를 통해 법을 경험한다.

수사관이 행사한 물리력이 법의 한 단면이라면 피의자가 내면화한 민족국가담론이 법의 다른 측면이다. 법의 통치는 시민 개개인이 내면화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국가와 민족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언급한 행위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국민에게 민족국가 담론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은 여러 갈래로 나뉘지고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는다. 피의자와 수사관의 주장은 다르며 사건은 여러 의견으로 쪼개진다. 이 분열된 사건의 종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에서는 단일한 법을 만난다. 여러 개의 주장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면서 법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누구나 언급하는 민족국가담론이 흥미롭다. 법의 완성은 법의 수용, 법질서 순응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 통치 질서를 내면화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에, 삶에 법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치 질서를 내면화한 장면은 『관산추정』에서도 드러난다. 『관산추정』은 유복산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복산의 아내는 국민투표 현장에서 출산해서 읍장, 서장, 군수로부터 직접 축하를 받았다. 아내는 투표 현장에서 출산을 하기로 작정 후 부러 출산을 지연할 정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국민투표를 이틀인가 앞둔 날이었다고 그는 말머리를 새로 하였다. ... “그러구 서 있지만 말구 얼릉 가봐유, 읍장두 땡겨가구 스장두 땡겨갔는디, 애 아버지는 위째서 그러구 서 있기만 현대유.” / “병원비는 스장이 다 낸다구 했다메?” / “군수가 금일봉을 보내오구 이름두 지어줬대유.” / 출산 예정일을 이틀 늦추어 투표일에 맞추려고 처방한 출산 지연제였다. 고을의 경사라 하여 군수가 금일봉이 든 봉투 속에 작명첩을 넣어 보낸 사실도 그날 밤으로 퇴원시켜놓고 나서야 안 일이었다. (『관산추정』, 303-304쪽)

‘복산’의 아내가 투פות날²⁹⁾ 거리에서 출산해서 군수로부터는 아이 작명과 금일봉을, 서장으로부터는 산부인과 입원비를, 읍장과 동네 주민으로부터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 ‘나’의 조부와 같이 현실 어른이 부재한 민주사회에서 군수, 서장, 읍장이 마을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가 임명한 군수, 서장, 읍장은 그 지역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실체이다. 그들로부터 축하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복산 아내의 의도는 국가 통치 권력이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있음을 방증하는 다른 예다. 통치권력, 국가권력이 수사기관처럼 선연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군-읍-면단위로 마을을 세분화해 중앙과 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소통 채널을 비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³⁰⁾

“평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두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평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

29) 보통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투표일은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날, 보편적 개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인 동시에 권력의 상징인 임명권자를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김수자,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지배와 저항담론의 불협화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329쪽.)

30) 허은, 『박정희 정부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체제 구축』, 『사총』 84호, 고려대학교 역사학연구소, 2015, 38쪽.

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괜 찰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동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 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허면 말입니 다..... 그럴 수는 읍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여요주서』, 345-346쪽)

‘신용모’의 재판은 ‘신용모’의 술주정에 의한 횡설수설로 벌금 2만 원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신용모’가 자신의 억울함을 채 발화하기도 전에 ‘신용모’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가 문제가 되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었다. ‘신용모’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내 심 기대했다. 일방적이었던 수사기관과 다르게 판사는 진실을 알아볼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자신의 권익도 언급하고, 포획된 야생동물만큼의 취급도 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도 호소했다. ‘신용모’의 이 횡설수설로 보이는 항변의 핵심은 야생동물 보호 지정 그 자체에 있다.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지, 보호로 지정된 동물은 무조건 돌봄의 대상인지 그 근본을 질문하고 있다. ‘신용모’의 이 항변은 우리 사회가 지정한 법의 경계를 들추고 그 경계 긋기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로 인해 법의 불완전성, 봉합된 법의 흔적이 드러난다.

2) 공인된 지식과 유사지식(pseudo knowledge)

통치는 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에서 주도한 지식 역시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알튀세르는 프롤레타리아가 접할 수 있는 지식은 부르주아가 제공한 설명의 장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³¹⁾ 알튀세르는 대중이 부르주아가 제공한 지식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은 지

31) 주형일, 『랑시에르의 해방된 대중과 지식인』, 『언론과 사회』 21권 1호, 2013, 50-51쪽.

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신화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알튀세르는 대중이 지식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대중에게 허락된 지식도 부르주아의 통치 수단의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푸코 역시 지식이 통치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지식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고 통제하는지를 분석했다. 푸코가 주목한 지식은 통치재 이면서 동시에 도덕과 규범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재였다.³²⁾ 푸코의 논의처럼 지식은 일상과 삶에서 피부처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월곡후야』는 두 개의 이야기 축을 갖고 있다. ‘김희찬’은 ‘문필업’이라는 모호한 직업을 가졌다. 문필업은 이미 출판된 번역본을 유명 출판사에서 가져다 몇 개의 단어, 문장을 고쳐 재출간하게 하는 일이다. ‘김희찬’은 명작, 대중서, 이론서 가릴 것 없이 가필, 변형, 위조했다. ‘김희찬’이 한 일은 지식에 변형을 가하는 일이다. 검증되고 확증된 지식에 틈을 내어 해독 불가능하게 교란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농촌의 어중간한 식자층이 책만 믿고 뭘 해보려 하면 반드시 실패하던 이유를 여기 와서야 알았지.”

희찬은 그것을 정보 산업 시대의 부작용이라는 어려운 말을 지어가며 말했다. ... 말할 나위 없이 유명 출판사들의 서적 위조였다. 기성 식자층은 색다른 것을 손대려면 아쉬운 대로 싼 맛에 그런 날조된 서적으로 교재를 삼았던 것이다. (『월곡후야』, 355쪽.)

장날 별전에서도 살 수 있는 허울 좋은 책들을 사서 읽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1장에 30원이라는 참담한 번역료를 벌고자 식민지 시대의 찌꺼기를 밀천으로, 하루에 백여 장씩 무책임하게 직역해 낸 그 서적 속의 모든 실험과 이론이 일본을 기준으로 전대되었다는 것을 알 까닭이 없었다. (『월곡후야』, 355-356쪽)

32)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16, pp. 5-63.

한 장에 30원짜리 유사서적은 책만 믿었던 이들을 배신하고 실패하게 한다. 지식의 충돌이자 의미의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데미안』, 『25시』, 『슬픔이여 안녕』, 『어린 왕자』, 『러브 스토리』 등 명작, 대중서 등을 정식 출간할 수 있는 출판 독점권을 가진 출판사는 지식의 정식 유통 창구이다. 일원화된 지식 창구로 유통된 것만이 바른 지식이다. 획일화된 지식은 동일성을 구축한다. 동일한 지식은 법과 더불어 중요한 통치 수단이다.³³⁾ 동일한 지식은 “국민적 보편주의의 모든 상상적 투사들을 제도들 및 제도들의 역사라는 공간 속에 비추기 위한 탁월한 도구”³⁴⁾ 역할을 한다. 획일화되고 동일한 지식은 그 지식을 공유한 사람 간 상상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보편성을 갖게 된다. 『월곡후야』에서는 그 공인된 지식이 교양서적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같은 지식을 지닌 사람 사이에서 사람은 국민성을 경험한다. 그 공통의 경험과 보편성이 미끄러진 활자와 언어로 인해 제대로 의미가 도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희찬’은 그 획일화된 지식에 균열을 가한다. 일원화된 지식에 균열을 가하고,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할 때 비로소 이 일원화된 지식의 권위가 새롭게 인식된다. 발리바르는 이를 일컬어 “소수자 유토피아들”³⁵⁾이라고 했는데 획일화, 동일성에서 벗어난 이 소수자 유토피아들이 『월곡후야』에도 드러난다. 의미의 미끄러짐, 유사지식은 인물의 행위에도 적용돼 나타났다.

“..... 높이 된 사람들이 하두 말보다 행동, 이론보다 실천, 허구 외쳐댄 영향인지 자칫하면 일내졌더라구. 우격다짐이건 뒤통 어쨌든 허면 된다는 사고 방식들이여.” (『월곡후야』, 359쪽)

“아무리 거시기현 사련이기는 허지만 이미 위자료가 근너가구 사화를 해서 당국에서두 눈감아준 것을 자네들이 워편다는 게여. 내가 이르

33) 발리바르, 『동일성/정상성』, 진태원 역,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2010, p. 73.

34) 위의 책, p. 75.

35) 위의 책, p. 82.

졌는지 제발 그만들 두라고, 세상이 이럴수록 다다 냉정허구 침착허게 사리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처신해야 쓰느겨. 그래야 배운 보람 있구 장차 큰일두 헐 수 있는 게지 흥분버텨하면 쓰겠나? ……” (『월곡후야』, 362쪽)

“그렇지? 월곡면 종채리가 틀림없지? 알겠나? 여기는 사람 사는 디여. 너 같은 짐승 사는 디가 아니란 말여. 위척혈래? 니열 새벽에 보따리 싸지? 어라, 이게 아직두 대답이 없어. 그럼 우털버러 니 집구석 기둥뿌리 찍어 넘기는 수고를 해달라는 거여 뭐여?” (『월곡후야』, 374쪽.)

『월곡후야』에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어린이가 침묵하자 마을 주민은 범인 찾기로 마을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한다. 범인은 화이트칼라 출신 폐결핵 환자로 피해 어린이의 친구 아버지로 밝혀졌다. 범인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 어린이 가족과 합의하고 그 합의를 수사기관에서조차 인정해 줘 기소마저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마을 청년들이 그 가해자를 응징하려고 나선다. 마을 청년들은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법 대신 가해자를 마을 ‘정서상’, 인간 ‘도덕상’, 민주 ‘시민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그를 마을에서 추방한다. 분명한 범법임에도 죄가 죄가 아닌 상황에서 마을 주민이 ‘인간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함으로 써 또 하나의 획일화된 체계에 균열이 가해진다. 의미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월곡후야』에서 법의 미끄러짐이 나타난 것이다.

균질하고 동질적인 지식담론은 자동화된 수직 관계를 지향한다. 중심과 주변을 가르고, 전체와 부분을 구분한다. 이문구는 『관촌수필』에서 이질적인 지식에 대해 묻고 답한다. 표준어가 아니라 토속어, 방언을 문학의 언어로 삼은 것처럼 획일화된 지식, 동질화를 이루는 지식이 아니라 의미를 교란하고 문맥을 흔뜨려 놓는 지식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관촌수필』은 이질적이고 이중의 지식이 곧 새로운 지식이면서 지향해야 할 대안적 지식이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이질적이고 이중의 지식이 균질하고 획일화된 지식과 공존함을, 함께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해방기 이후 197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근 40여 년의 우리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관촌수필』이 해방기-건국-전쟁-군사 정권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 담론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독해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농촌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관촌수필』을 근대국가 통치 담론을 담아낸 소설로 보고자 했다. 특히 농촌이 도시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보급책이었기 때문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국가 통치 경향이 소설에 녹아있다고 보았다.

제1공화정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근대 국가 담론은 인적자원을 재배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사농공상의 질서가 비교적 잘 보존된 지방은 중앙집권형 권력에 방해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앞세워 이승만 정권은 토지개혁을 이승만 정권, 박정희체제는 반공주의를 그리고 박정희체제의 차별적인 농촌개발 전략은 지방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했다. 특히 인구 재배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분 질서를 앞세운 유교 공동체는 토지개혁을 통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농촌구성원을 표준화하게 했다. 토지개혁으로 농촌에서 절대부를 지녔던 대지주가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토지는 재분배되었다. 대지주에게 충분하 보상이 뒤따르지 않고, 임대 농부가 자영농으로, 빈농이 부농으로 성장할 발판이 만들어지면서 농촌은 자연스럽게 인구 재배치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동안 반공주의를 앞세운 통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통일된 정체성을 갖게 했다. 이제 농촌은 신분적으로, 사상적으로도 통일된 국민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차등적인 농촌개발로 전통사회와는 다른 위계화가 형성되었다. 농촌에 차별적인 개발은 원주민을 떠나게 하고, 외부인이 유입되는 동인이 되었다.

인적, 물적 재배치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 권력의 핵심은 법과 지식이

다. 폭력성은 법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법의 폭력성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본질임을 밝혔다. 법이 합리성, 정의를 앞세우지만 법의 실체가 금기, 제한, 금지이며 신의 법이든, 인간의 법이든 폭력성을 그 뿌리에 둬 밝혔다. 다만 법은 다양한 관점들의 종합인 만큼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때 법의 그 폭력적인 실체와 본질이 드러남을 밝혔다. 아울러 지식 역시 획일화, 동일성을 통해 보편성을 공유한다는 속성을 밝혔다. 다만 『관촌수필』에서는 그 획일적인 보편성이 미끄러진 지식, 유사지식으로 드러나면서 소수자 유토피아를 만나게 함을 밝혔다.

참고문헌

1. 기본 도서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1996.

2. 논문 및 저서

고인환,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과 탈식민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구자황, 「이문구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이문구 소설의 이야기성에 관한 두 가지 고찰」, 『한국문학연구』 5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 137-164쪽.

김경희,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옥선, 「1960~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지역 식민화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김세준, 「운동성으로서의 총체성과 문학비평담론 연구」, 『현대문학이론 연구』 76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32-33쪽.

김수자,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지배와 저항담론의 불협화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327-358쪽.

김현정, 「근대문명의 폭력과 고향」, 『비평문학』 4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121-146쪽.

나미숙, 「『관촌수필』 인물 연구」, 『사림어문연구』 24권,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림어문학회, 2014, 83-106쪽.

문지영,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부 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박수현, 「이문구 소설의 민중 표상 연구」, 『어문학』 111호, 한국어문학회, 2011, 289-331쪽.

- _____, 『망탈리테의 구속 혹은 1970년대 문학의 모태』, 소명출판, 2014.
- 송호영, 「『관촌수필』을 구성하는 기억과 망탈리테」, 『한국문학연구』 62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0, 121-152쪽.
- 신병식, 「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보』 31권 3호, 한국정치학회, 1997, 25-46쪽.
- 용석원, 「이문구 『관촌수필』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과 의미」, 『겨레어문학』 58호, 겨레어문학, 2017, 243-274쪽.
- 우은진, 「이문구의 『관촌수필』에 나타나 있는 로컬리티 재현 연구」, 『한국문학논총』 86권, 한국문학회, 2020, 181-211쪽.
- 우찬제, 「포괄의 언어와 복합성의 생태학」, 『문학과 환경』 10권, 문학과 환경학회, 2011, 83-109쪽.
- 유승환, 「사투리는 어떻게 문학어가 되는가?」, 『구보학회』 18호, 구보학회, 2018, 327-422쪽.
- 이승수, 「『관촌수필』의 독법 두 가지」, 『동악어문학』 84권, 동악어문학회, 2021, 9-38쪽.
- 장마리,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주형일, 「랑시에르의 해방된 대중과 지식인」, 『언론과 사회』 21권 1호, 2013, 45-73쪽.
- 한선희,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과 시골/도시 담론」, 『역사연구』 31호, 역사학연구소, 2016, 239-280쪽.
- 허은, 「박정희 정부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체제 구축」, 『사총』 84호, 고려대학교 역사학연구소, 2015, 31-74쪽.
- 발리바르, 진태원 역, 『동일성/정상성』,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2010.
- 미셸 푸코, 오르트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 _____,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16.

스티븐 밀러, 강수영 역, 『법 이론의 한계에 선 라캉』, 『법은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사랑, 2008.

<Abstract>

The relocation of human capital in modern
national and the discourse of law and
knowledge
- Focusing on Lee Moon-gu's The Essays on
Gwan-chon

Kwon, Kyong-mi*

Lee Mun-gu's Gwan-chon essay is set in the history of nearly 40 years from the liberation period to the mid-1970s. Since Gwan-chon Essay contains the period of liberation, founding, war, and military regime, it is a good reading book to read Korea's discourse on state governance. However, until now, Gwan-chon Essay has been studied only in rural areas. In this paper, I tried to see Gwan-chon Essay as a novel containing the discourse of modern state governance. In particular, since rural areas were a measure to supply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cities, it was considered that the tendency to govern the country from the founding of Korea was dissolved in novels.

The human-material rearrangement of Gwan-chon essay appears on three levels. First, the reorganization of status society through land reform. Second, it is to raise democratic citizenship awareness through anti-communism. Third, it is the movement of natives through differential rural development.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In addition to the reloc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core of the modern state governance discourse is law and knowledge. The law is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violence, and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that the violence of the law is not unusual, but the essence of the law. In addition, knowledge also has the characteristic of sharing universality through uniformity and identity. However, in Gwan-chon Essay, it is noteworthy that its uniform universality is revealed by slippery knowledge and similar knowledge, leading to meeting minority utopia.

Key Words: land reform, anti-communism, standardization, pseudo knowledge, violence, recognized knowledge, minority utopia, Balibar, Althusser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2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5일